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에 관한 논쟁과 언어 변이성 개념에 근거한 그 이론적 평가

김동혁*

1. 언어학적 연대 결정에 관한 논쟁

구약 성서 본문의 연대를 언어학적 증거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까?¹⁾ 연대에 있어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못하는 어떤 성서 본문의 연대를, 본문이 언급하는 인물이나 사건 또는 본문이 드러내는 사상이나 신학 등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그 본문을 담고 있는 언어학적 증거에만 근거하여 결정할 수 있을까?

지난 세기까지 이 질문에 대한 학계의 대답은 만장일치에 가까운 “그렇다.”였다. 이는 성서 히브리어의 통시적 연구 분야에서 이 시대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 대학의 후르비츠(Avi Hurvitz)에게 크게 힘입은 것이었다. 후르비츠 이전의 학자들은 성서 히브리어가 그 형태에 있어 일반적으로 둘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 감리교신학대학교 강사, 구약학

1) 본 소고는 필자의 박사 학위 논문인 Dong-Hyuk Kim, “The Use of Linguistic Evidence in the Dating of Biblical Hebrew Texts,” Ph. 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2011)의 일부를 정리한 것으로 지난 2012년 3월 22일 대한성서공회에서 열렸던 한국신학정보연구원 학술 세미나와 4월 20일 나사렛 대학교에서 열렸던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학술 세미나 중 비평을 통해 내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민영진 교수, 김정우 교수, 김희석 교수와 학술대회의 논찬을 통해 비평과 제안을 주신 유윤종 교수, 김구원 교수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즉, 포로기를 중심으로 그 이전에 쓰였던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그 이후에 쓰였던 후기 성서 히브리어가 그것이다.²⁾ 후르비츠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성서 히브리어는 바빌론 포로기에 결정적인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후기 성서 히브리어와 초기 성서 히브리어는 그 형태와 시기에서 단절된다. 즉, 후기 성서 히브리어와 초기 성서 히브리어는 그 형태에서 명확히 구별되고 그 시기에서 불연속적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포로기 이후의 성서 기자들은 초기 성서 히브리어를 재현하려고 노력했다라도 성공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후기 성서 히브리어는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그 형태와 시기에 있어서 단절되기 때문에 성서 본문의 연대를 언어학적 증거만을 사용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
- 2)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있어 초기 성서 히브리어의 전형은 오경과 신명기 역사서의 산문이다.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대표적인 예는 제2성전기 책들(특히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의 다섯 권)의 산문이다. 성서 히브리어를 이렇게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로 구분한 이는 쿠처(E. Y. Kutscher)인데, 본래 쿠처의 구분은 이 둘 외에 고(古) 성서 히브리어(Archaic Biblical Hebrew)도 포함한다. 고 성서 히브리어는 성서 히브리어 중 가장 오래된 층으로서 오경과 신명기 역사서에 보존되어 있는 매우 오래된 시들(예를 들어, 창세기 49장; 출애굽기 15장; 신명기 32장; 사사기 5장 등)로 대표되는 히브리어 형태이다[E. Y. Kutscher,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Raphael Kutscher, ed. (Jerusalem: Magnes, 1982), 79-80을 참조하라]. [성서 히브리어의 역사 개관을 위해서는 샌즈-바딜로스, 『히브리어 발달사』, 최명덕, 박미섭 역 (서울: 기혼, 2011)을 참조하라.] 고 성서 히브리어는 본 소고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양이 매우 적어서 본문의 연대 결정과 관련한 역할이 미미하기 때문이고, 둘째, 언어학적 연대 결정에 관한 논의의 핵심이 포로기 이전과 이후의 구분에 있기 때문이다. 고 성서 히브리어 시들의 연대 결정에 관한 고전적 연구로 David A. Robertson, *Linguistic Evidence in Dating Early Hebrew Poetry*, SBLDS 3 (Missoula: SBL, 1972)을 참조하라. 최근의 연구로는 Robyn C. Vern, *Dating Archaic Biblical Hebrew Poetry: A Critique of the Linguistic Arguments*, Perspectives on Hebrew Scriptures and Its Contexts 10 (Piscataway: Gorgias, 2011)을 보라. 베른은 고 성서 히브리어 시문의 연대를 결정할 때에 언어학적 증거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필자에게 로버트슨의 책을 소개해 준 유윤중 교수와 베른의 책을 소개해 준 마르부르크 대학의 마이어(Christl M. Maier) 교수께 감사드린다.

성서 연구에 있어 후르비츠의 가장 큰 공헌은 구약 성서 본문의 연대를 언어학적으로 결정하는 방법론을 정립한 것이다.³⁾ 몇몇 학자들은 재빨리 이 방법론을 받아들였고, 이들은 후르비츠와 함께 연대가 합의되지 않은 본문들의 연대를 결정하는 시도를 하였다.⁴⁾ 이들에게

-
- 3) 후르비츠의 방법론은 아래 2장을 보라.
- 4) 후르비츠는 자신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P, 에스겔, 시편의 시들, 욥기의 산문, 전도서의 연대를 결정하였다. 이 중 주목할 만한 주장을 담은 연구는 P의 언어와 에스겔의 언어를 비교한 것이다[Avi Hurvitz, *A Linguistic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estly Source and the Book of Ezekiel: A New Approach to an Old Problem*, CahRB 20 (Paris: J. Gabalda, 1982)]. 후르비츠는 주제에서 많은 유사점을 보이는 P와 에스겔이 언어적으로 대조를 보일 때 P의 언어는 언제나 에스겔의 언어보다 유형적으로 앞선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에스겔은 포로기의 예언자이므로 P는 (다수 학자들의 의견과는 달리) 포로기 이전의 문헌이 되는 것이다(Hurvitz, *Priestly Source and Ezekiel*, 170). P의 언어가 (따라서 P 문서도) 포로기 이전의 것이라는 후르비츠의 주장은 학계에서 큰 논쟁거리가 되었다. 후르비츠에 대한 반론들을 다음과 같다: Joseph Blenkinsopp, "An Assessment of the Alleged Pre-Exilic Date of the Priestly Material in the Pentateuch," *ZAW* 108 (1996), 495-518; Frank H. Polak, "Parameters for Stylistic Analysis of Biblical Hebrew Prose Texts," Johann Cook, ed., *Bible and Computer: The Stellenbosch AIBI-6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Internationale Bible et Informatique "From Alpha to Byte": University of Stellenbosch, 17-21 July, 2000* (Leiden: Brill, 2002), 277-279 (특히 279). 레빈(Baruch A. Levine)은 후르비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나 P가 사용한 용어에 근거하여 P가 페르시아 시대의 문헌이라고 주장한다: Baruch A. Levine, "Late Language in the Priestly Source: Some Literary and Historical Observations," *Proceedings of the Eighth World Congress of Jewish Studies, Jerusalem, August 16-21, 1981: Panel Sessions: Bible Studies and Hebrew Language* (Jerusalem: World Union of Jewish Studies, 1983), 69-82. 블렌킨숍의 윗글에 대한 응답으로 다음 연구들이 발표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P가 포로기 이전의 문헌이라고 주장한다: Jacob Milgrom, "The Antiquity of the Priestly Source: A Reply to Joseph Blenkinsopp," *ZAW* 111 (1999), 10-22; Avi Hurvitz, "Once Again: The Linguistic Profile of the Priestly Material in the Pentateuch and Its Historical Age: A Response to J. Blenkinsopp," *ZAW* 112 (2000), 180-191; Gary A. Rendsburg, "Once More the Dual: With Replies to J. Blau and J. Blenkinsopp," *ANES* 38 (2001), 35-39. 밀그롬은 레위기 주석에서 여러 증거를 사용하여 P가 포로기 이전의 문헌이라는 점을 역설하는데 그의 논의는 언어학적 증거도 포함한다. Jacob Milgrom, *Leviticus 1-1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있어 후르비츠의 연대 결정 방법론은 비유컨대 언어학적 탄소 동위 원소 측정법 같은 것으로서 해석자의 사변이나 주관적 해석에 근거하지 않은 ‘과학적인’ 방법이였다. 즉, 연대가 결정되지 않은 어떤 본문의 언어 샘플들을 후르비츠의 방법론으로 테스트하면 그것들의 연대가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것이다. 후르비츠의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일반 성서학자들도 그의 방법론과 그 방법론으로부터 도출된 결론들에 대해 동의하였다. 후르비츠의 방법론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학자들이 전혀 없지는 않았으나, 당시의 반론들은 전면적이지 못했다.⁵⁾

3 (New York: Doubleday, 1991), 3-8을 보라.

시편, 욥기, 전도서에 관한 후르비츠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Hurvitz, *The Transition Period in Biblical Hebrew: A Study in Post-Exilic Hebrew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Dating of Psalms* (Jerusalem: Bialik, 1972) [Hebrew]; Hurvitz, "The Date of the Prose-Tale of Job Linguistically Reconsidered," *HTR* 67 (1974), 17-34; Hurvitz, "The Language of Qoheleth and Its Historical Setting within Biblical Hebrew," Angelika Berlejung and Pierre Van Hecke, eds., *The Language of Qoheleth in Its Context: Essays in Honour of Prof. A. Schoors on the Occasion of His Seventieth Birthday*, OLA 164 (Leuven: Peeters, 2007), 23-34. 후르비츠의 방법론을 받아들인 학자들의 연구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Ronald L. Bergey, "The Book of Esther: Its Place in the Linguistic Milieu of Post-Exilic Biblical Hebrew Prose: A Study in Late Biblical Hebrew," Ph. D. Dissertation (Dropsie College for Hebrew and Cognate Learning, 1983); Mark F. Rooker, *Biblical Hebrew in Transition: The Language of the Book of Ezekiel*, JSOTSup 90 (Sheffield: JSOT Press, 1990); Gary A. Rendsburg, *Linguistic Evidence for the Northern Origin of Selected Psalms*, SBLMS 43 (Atlanta: Scholars, 1990); F. W. Dobbs-Allsopp, "Linguistic Evidence for the Date of Lamentations," *JANES* 26 (1998); Richard M. Wright, *Linguistic Evidence for the Pre-Exilic Date of the Yahwistic Source*, LHBOTS 419 (London: T&T Clark, 2005). 유윤중은 후르비츠와 렌즈버그(Gary A. Rendsburg)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호세아서에 나타난 북이스라엘 히브리어의 특징들을 연구하였다. 유윤중, "호세아서에 나타난 북이스라엘 히브리어," 「구약논단」 11 (2001), 71-90을 참조하라.

5) 예를 들어, 데이비스(Philip R. Davies)는 그의 *In Search of 'Ancient Israel'*(초판은 1992년; 아래의 페이지는 오자만을 수정한 2판[London: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을 따른 것이다)에서 후르비츠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을 비판할 때 다섯 쪽(97-101)만을 할애한다.

약 십여 년 전까지 후르비츠의 방법론은 학계에서 표준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2003년 이후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을 다루는 연구물들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상황이 급작스럽게, 또 근원적으로 바뀌었다. 2003년에 이 주제만을 다룬 에세이 모음집이 출판되었고, 저널 *Hebrew Studies*는 2005년과 2006년 호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논의를 이어갔다.⁶⁾ 위 단행본과 저널은 후르비츠를 지지하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을 모두 담고 있다. 2008년에는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후르비츠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 방법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두 권짜리 책인 *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가 출판된다.⁷⁾

이 책은 영(Ian Young), 레젯코(Robert Rezetko), 에렌스베르드(Martin Ehrensvärd) 세 학자가 공저한 것인데, 이들을 ‘도전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주장이 당시까지의 합의(즉, 연대 결정에 관한 후르비츠의 이론)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이다.⁸⁾ 2003년 이후의 ‘도전자들’의 연구물들은 보기에 따라서는 후르비츠의 이론의 근간을 흔들 만한 잠재력을 지닌 것들이었다. 그 이전과는 달리 이 도전들은 포괄적이고, 세련되며, 무엇보다 실제 자료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6) Ian Young, ed., *Biblical Hebrew: Studies in Chronology and Typology*, JSOTSup 369 (London: T&T Clark, 2003); *Hebrew Studies* 46 (2005), 321-376; *Hebrew Studies* 47 (2006), 83-210.

7) Ian Young, Robert Rezetko, and Martin Ehrensvärd, *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 2* (London: Equinox, 2008).

8) 필자는 본 소고에서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에 반대하는 학자들을 지칭할 때 ‘도전자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본 소고에서 ‘도전자들’은 대개 *Linguistic Dating*의 공저자들인 영, 레젯코, 에렌스베르드를 지칭한다). 이 표현은 Young, ed., *Biblical Hebrew*에 대한 제빗(Ziony Zevit)의 서평에서 유래하였다. 이 서평에서 제빗은 기존의 합의였던 후르비츠의 이론에 반대하는 주장을 ‘challenger arguments’라고 지칭한다. Zevit, “review of Young, ed., *Biblical Hebrew*,” *RBL* 6 (2004), 7 (Online: http://bookreviews.org/pdf/4084_3967.pdf)을 보라.

본 소고가 도전자들의 논의들을 모두 다룰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들이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하며, 논쟁의 여러 측면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도전자들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가 그 형태에 있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둘은 형태와 시기에 있어 (전통적인 의견이 주장하는 것만큼) 완전히 단절되지 않는다. 둘째, 이 때문에 성서 본문의 연대를 언어학적 증거만을 사용해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셋째,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는 포로기 이후 성서 기자들이 (또한 아마도 포로기 이전의 성서 기자들 역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동시대의 스타일들일 뿐이다.⁹⁾ 요컨대, 도전자들의 주장은 후르비츠 이론의 핵심 사항 각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2. 후르비츠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 방법론

두 진영-후르비츠 및 그를 따르는 이들과 후르비츠의 도전자들-의 논쟁의 핵심을 짚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학적 연대 결정에 관한 후르비츠의 방법론을 이해해야 한다.

후르비츠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 방법론은 두 단계로 나뉜다. 첫째 단계는 어떤 언어 요소(음운, 철자, 단어, 표현, 문법 구조 등)가 후기 성서 히브리어에 속하는지(즉,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이고, 둘째 단계는 이렇게 후기 성서 히브리어에 속한다고

9) 도전자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아래 3장을 보라. 도전자들에게 있어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라는 용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들이다. 도전자들에 따르면 두 형태의 성서 히브리어는 시기에 따른 구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도전자들은 두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는 달리 쓸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이 없기 때문이다. Young, Rezetko, and Ehrensverd, *Linguistic Dating* 1, 4를 보라.

판단된 언어 요소들을 지닌 어떤 본문이 후기 성서 히브리어에 속하는 지(즉, 후기 성서 히브리어 본문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먼저 어떤 언어 요소가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적 요소라고 규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언어학적 분포(**linguistic distribution**), 언어학적 대조(**linguistic contrast** 또는 **opposition**), 성서 외 자료(**extrabiblical sources**).¹⁰⁾

첫째, 어떤 언어 요소가 언어학적 분포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의미는 그 언어 요소가 포로기 이후에 저작된 것이 확실한 책들(대표적으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에서 주로, 그리고 널리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 언어 요소는 초기 문헌에서 전혀 (혹은 거의) 사용되지 않아야 하고 후기 문헌에서는 여러 곳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논의 중인 언어 요소가 후기의 책 중 단 한 권에서만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 언어 요소가 그 책의 기자만의 개인 방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포로기 이후 책들 전부, 혹은 대부분에 쓰이는 어떤 언어 요소가 있다면 이로부터 우리는 이 언어 요소가 포로기 이후 성서 기자들이 두루 사용하던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둘째, 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만으로는 특정 언어 요소가 포로기 이후에 새로 생긴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는 없다. 포로기 이전 책들에 이 언어 요소가 쓰이지 않은 것이 단지 우연에 의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포로기 이전의 성서 기자들에게 이 언어 요소를 사용할 기회 자체가 없었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조건인 언어학적 대조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즉, 논의 중인 언어 요소와 대조를 이루는 초기 성서 히브리어 언어 요소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후자는 초기 성서 히브리어를 예시하는 책들(주로 오경과 신명기 역사서)에서 주로 (혹은 전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요소여

10) 후르비츠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Hurvitz, "Linguistic Criteria for Dating Problematic Biblical Texts," *HA* 14 (1973), 74-79를 참조하라. 또한 Young, Rezetko, and Ehrensverd, *Linguistic Dating* 1, 20-23의 요약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야 한다. 이때 논의 중인 언어 요소와 그와 대조되는 초기 성서 히브리어 언어 요소는 의미가 서로 같거나 비슷해야 하고, 쓰이는 환경 역시 서로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

후르비츠 방법론의 세 번째 조건은 논의 중인 언어 요소가 동시대(즉, 제2 성전기 초기) 혹은 그 이후 시대의 성서 외 자료에서도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논의 중인 언어 요소가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당대의 특징적 언어였다는 점이 더 확실해진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성서 외 자료들은 사해 두루마리, 히브리어 벤 시라, 미시나 히브리어 자료, 제국 아람어 자료 등이 있다.¹¹⁾

예를 들어, 에스겔에 “문서, 기록”을 의미하는 ‘크타브’(כתב)가 사용된다. 이 단어는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적 표현일까? 첫째, 이 단어는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에 사용되므로 후르비츠의 첫 번째 조건(언어학적 분포)을 만족시킨다. 둘째, “문서, 기록”이라는 의미가 보다 오래된 책들에서는 ‘세페르’(ספר) 혹은 ‘미크타브’(מִכְתָּב)으로 표현되므로 ‘크타브’는 언어학적 대조의 조건 또한 만족시킨다. 마지막으로, 이 단어(כתב)는 사해 두루마리(1Q34 3 III, 7), 벤 시라(예를 들어 39:32; 44:5), 미시나 히브리어(*m. Sabb.* 12:5)에서 사용되므로 후르비츠의 세 번째 조건(성서 외 자료)을 만족시킨다. 그러므로 에스겔에서 사용되는 단어 ‘크타브’는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¹²⁾

11) 제국 아람어가 히브리어가 아님에도 성서 본문의 연대 결정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는 근거는 포로기를 전후한 히브리어의 변화의 주요인이 아람어와의 접촉이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새로운 문법, 새로운 표현, 새로운 단어의 상당수가 바빌론 강제 이주기 당시 공용어였던 아람어 영향을 직접 받아서 생겨났다는 것이다. 초기 성서 히브리어에서 후기 성서 히브리어로 변화한 것이 바빌론 포로기의 아람어와의 접촉으로 촉발되었다는 주장은 예컨대 Hurvitz, “The Relevance of Biblical Hebrew Linguistics for the Historical Study of Ancient Israel,” Ron Margolin, ed., *Proceedings of the Twelfth World Congress of Jewish Studies, Jerusalem, July 29-August 5, 1997: Division A: The Bible and Its World* (Jerusalem: World Union of Jewish Studies, 1999), 28*을 보라.

그러므로 위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우리는 어떤 단어, 어떤 표현, 어떤 구조 등이 후기 성서 히브리어에 특징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규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단어, 표현, 구조가 후기 성서 히브리어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어떤 본문(혹은 책)이 후기 성서 히브리어 본문(혹은 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과는 별개이다. 따라서 후르비츠는 특정한 언어 요소가 아닌 그보다 넓은 단위인 어떤 본문(혹은 책)의 연대 결정을 위하여 네 번째 조건을 상정한다. 즉, 어떤 본문(혹은 책)이 후기 성서 히브리어 본문(혹은 책)으로 규정되려면 그 본문(혹은 책)에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적 언어 요소들이 충분히 축적(accumulation)되어 있어야 한다. 즉, 어떤 본문에 첫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적 언어 요소들이 다수 들어 있다면(즉, 충분히 축적돼 있다면) 그 본문은 포로기 이후의 저작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3. 도전자들의 주장

후르비츠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 이론에 대한 영, 레젠크, 에렌스베르드의 반론은 후르비츠 이론의 모든 면을 망라하나 여기서는 앞에서 다룬 후르비츠의 방법론의 네 가지 조건 중 첫째, 둘째, 넷째 조건에 관한 것만을 다루려고 한다.¹³⁾

먼저 첫 번째 조건인 언어학적 분포에 대하여 도전자들은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들과 초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들이 배타적으로 분포

12) Rooker, *Biblical Hebrew in Transition*, 139-140.

13) 영, 레젠크, 에렌스베르드는 후르비츠의 이론을 비판한 그들의 책에서 다음의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다: 포로기 이전의 비문 자료들, 방언, 아람어 자료, 미시나 히브리어, 쿰란 히브리어와 벤 시라, 차용어, 본문 비평. Young, Rezetko, and Ehrensverd, *Linguistic Dating*, 특히 1권을 보라.

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서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으로 규정되는 언어 요소들이 포로기 이후 책들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초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으로 규정되는 언어 요소들도 초기 책들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후르비츠와 그의 지지자들이 말하는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적 언어 요소들의 대다수는 실상 포로기 이후 책들에서만 쓰이는 언어 요소들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 책들에서 주로, 더 많이 쓰이는 언어 요소들이다. 마찬가지로 후르비츠가 말하는 초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은 초기 책들에서 더 많이 쓰이는 언어 요소이지, 그 책들에서만 쓰이는 언어 요소는 아니다. 도전자들은 실례로 후르비츠의 방법론을 충실하게 따르는 루커(Mark F. Rooker)의 연구를 인용한다.¹⁴⁾ 루커는 에스겔의 언어 연구에서 37쌍의 후기 성서 히브리어와 초기 성서 히브리어 간의 언어 대조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 중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과 초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이 배타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즉,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이 제2 성전기 책들에서만 사용되고 초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이 초기의 책들에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단 두 경우밖에 없었다. 아홉 쌍의 경우는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이 초기 책들에서 사용되지 않는 않지만, 각각 대조되는 초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은 후기 책들에서도 사용되었다. 또한 26쌍의 경우는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이 초기 책들에서 발견되고, 그와 대조되는 초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이 후기 책들에서 사용되었다. 이 같은 사실-초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들과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들의 분포가 배타성이 아니라 빈도수 혹은 경향성을 통해 보이는 상황-에 근거하여 도전자들은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는 언어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대의 두 스타일, 즉 보수적 스타일과 현대적 스타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¹⁵⁾

14) Rooker, *Biblical Hebrew in Transition*.

15) Young, Rezetko, and Ehrensverd, *Linguistic Dating* 1, 86-87.

둘째, 후르비츠의 두 번째 조건(언어학적 대조)에 대한 도전자들의 반론은 첫 번째 조건(언어학적 분포)에 대한 그들의 반론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즉, “초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이 후기 성서 히브리어 본문[즉, 후기의 책들]에서 발견되는 만큼, 또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이 초기 성서 히브리어 본문(즉, 초기의 책들)에서 발견되는 만큼,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 사이의 대조는 그 기반이 약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영, 레젯코, 에렌스베르드는 결론적으로, “면밀히 따져 보면, 전통적으로 초기 또는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이라고 생각돼 온 언어 요소들 중 상당수가 언어학적 분포 및 언어학적 대조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주장한다.¹⁶⁾

셋째, 후르비츠의 네 번째 조건은 본문의 연대 결정을 위해 제시된 조건으로 특징들의 축적이었다. 이에 대한 영, 레젯코, 에렌스베르드의 비판의 핵심은 축적에 대한 양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한 본문에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사용되어야, 어떤 한 특징이 몇 번 사용되어야 그 본문이 후기 성서 히브리어 본문으로 규정되는가? 후르비츠 및 그를 따르는 학자들은 이에 대해 분명한 숫자를 제시하지 않는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초기의 책들에도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들이 종종 사용된다. 이에 대해 후르비츠와 그를 따르는 학자들은 초기 본문들에서 볼 수 있는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들은 무시해도 될 만큼 조금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무리 그 양이 적다고 하더라도 초기 본문에서 만나는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적 언어 요소들을 과연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이 같은 의견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포로기 이후의 예언서들을 둘러싼 논쟁이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언어를 자신의 방법론을 따라 살펴본 후 후르비츠는 이 책들 각각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흔적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전자들 중 하나인 에렌스베르드는 이 책들 속에 “후기 성서

16) Ibid., 88-89.

히브리어의 특징이라고 분명하게 생각되는 것들”은 전혀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¹⁷⁾ 도전자들은 이 책들의 히브리어를 특징적으로 “포로기 이후의 초기 성서 히브리어(Postexilic Early Biblical Hebrew)”라고 명명한다.¹⁸⁾

도전자들의 반론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성서 히브리어에서 ‘말라카’(מַלְכָּה)와 ‘말쿠트’(מַלְכוּת)는 “왕국”을 의미하는 동의어인데,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전자를 초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적 표현으로, 후자를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적 표현으로 이해해 왔다. 실제로 ‘말쿠트’는 초기 책들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나 포로기 이후의 책들에서는 매우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도전자들은 두 단어의 대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를 들어, מַלְכוּת ‘왕국’는 의심할 것 없이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적 표현이다. 이 단어는 히브리 성서에서 총 91번 사용되는데 이중 78번이 핵심적인 후기 성서 히브리어 책들[즉,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에서 사용되며, 6번은 후기 성서 히브리어 본문이라고 생각되는 코헬렛과 시편의 시들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이 단어는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적 분포를 뚜렷하게 보여 준다[즉, 후르비츠의 언어학적 분포 조건을 분명하게 만족시킨다]. 그에 더하여 이 단어는 또한 같은 의미를 지니는 מַלְכָּה와 나무랄 데 없는 언어학적 대조를 보여 준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니 91 번 중 7 번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같은 초기 성서 히브리어 책들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전통적인 의견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성서 히브리어에 대한) 통시적 연구 방법론의 문제점을 드러낸

17) Hurvitz, “The Recent Debate on Late Biblical Hebrew: Solid Data, Experts’ Opinions, and Inconclusive Arguments,” *HS* 47 (2006), 206-207; Martin Ehrensward, “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 Young, ed., *Biblical Hebrew*, 176.

18) “포로기 이후의 초기 성서 히브리어”(postexilic Early Biblical Hebrew)는 Ehrensward, “Linguistic Dating”을 참조하라.

다. 과연 מלכות는 여전히 ‘후기의’ 언어적 특징인가? 만약 그러하다면, 어떤 본문에 이 단어가 (한 번이라도)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 본문의 연대를 포로기 이후로 결정해야만 한다는 점을 뜻한다. 그리고 מלכות를 사용하는 어떤 초기 본문의 연대가 (초기가 아니라) 후기라고 결정된다면, 우리가 어떤 본문의 연대를 결정할 때 ‘축적’의 조건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에 대한 답으로 초기 본문에 나오는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적 표현이 실제로는 ‘후기의 것’이 아니고 포로기 이전에도 사용되던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언어 표현은 더 이상 연대 결정을 위한 지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¹⁹⁾

도전자들의 일관된 주장은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가 동시대의 보수적, 현대적 스타일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전자들이 언어의 형태만을 가지고 구약 성서 본문의 연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²⁰⁾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도전자들의 근거는 여러 측면을 포함한다.²¹⁾ 그러나 그들의 근거의 핵심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초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들과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들이 배타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빈도나 경향성으로만 구분이 된다는 점이다(이 때문에 후르비츠는 네 번째 조건인 후기 성서 히브리어 특징들의 축적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두 그룹의 학자들은 똑같은 자료를 보면서도 정반대의 해석을 하는 셈이다. 예컨대, 포로기 이후 예언서들(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에서 후르비츠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흔적들”을 보지만, 도전자들은 이 책들 각각에서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이라고 분명하게 생각되는 것들”은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²²⁾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자명하다. 과연 빈도나 경향성으

19) Young, Rezetko, and Ehrensävrd, *Linguistic Dating* 2, 84-85.

20) Young, Rezetko, and Ehrensävrd, *Linguistic Dating* 1, 86 et passim.

21) 위 각주 13) 참조.

22) Hurvitz, “Recent Debate,” 206-207; Ehrensävrd, “Linguistic Dating,” 176.

로 표현되는 자료를 평가할 수 있는 경험적 기준이 존재하는가?²³⁾

4. 사회 언어학, 언어 변화, 언어 변이

빈도와 경향성으로 표현되는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들의 관계는 대개 다음과 같다.

의미 **A**는 성서 히브리어에서 형태 **B** 혹은 형태 **C**로 표현된다. 형태 **B**는 초기의 책들에서 더 많이 쓰이고 형태 **C**는 포로기 이후 책들에서 더 많이 쓰인다.

중요한 점은 이때 **B**와 **C**의 관계가 언어학에서 말하는 언어 변이의 예라는 점이다. 사회 언어학의 핵심 개념인 언어 변이는 어떤 언어 항목이 두 가지 이상의 형태로 실현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실현되는 형태들은 언어학적으로(즉, 문법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I am singing.”이라고 말하는 것과 “I am singin’.”라고 말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같은 의미를 지니므로 두 문장은 언어 변이의 한 예가 된다. 또한 “I don’t know anything.”과 “I don’t know nothing.”은 비록 사회적 함의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언어학적으로(즉, 문법적으로)는 동가적이므로 이 둘 역시 언어 변이의 한 예이다.

그러나 언어 변이를 언어 변화라는 관점에서 중심적으로 연구하는 언어학 분과가 바로 사회 언어학이다.²⁴⁾ 문제는 그동안 성서 히브리어

23) 성서 히브리어의 시대 구분 및 언어학적 연대 결정에 관한 2000년대 초반까지의 논의를 요약한 개관은 김유기, “성서 히브리어의 시대 구분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 『성서마당』 신창간 13 (2007), 62-71을 참조하라.

24) 트래스크(R. L. Trask)는 사회 언어학을 “언어 안에 있는 변이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한다[R. L. Trask, *Historical Linguistics* (London: Arnold, 1996), 269].

문헌학자들이 성서 히브리어 본문의 연대 결정에 관한 논의에서 언어 변이와 언어 변화에 관한 사회 언어학적 지식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²⁵⁾ 필자는 사회 언어학이 제시하는 언어 변이와 언어 변화에 관한 이해가, 평행선을 달리는 후르비츠와 도전자들 사이의 논쟁을 화해, 혹은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언어 변이와 언어 변화에 관한 사회 언어학의 설명 중 우리의 논의에 직접 관련되는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려 한다.

첫째, 언어 변이는 언어 변화의 메커니즘이다. 다시 말하면, 언어 변화는 변이의 상태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언어는 수많은 규칙들이 그 안에 있는 각 항목들을 지배하고 조정하는 구조물이다. 즉, 언어라는 복잡한 구조물의 질서를 유지해 주는 것이 바로 언어 규칙들이다. 그런데 그 규칙들의 일부가 지속적으로 변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 구조물은 본연의 기능(즉, 의사소통의 기능)을 여전히, 흠잡을 데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 비유를 하자면, 어떻게 축구의 규칙 일부가 지속적으로 변하는 가운데서도 축구 경기가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일까? 사회 언어학자들이 밝힌 바 그 열쇠는 바로 언어 변이에 있다. A라는 언어 규칙에서 B라는 언어 규칙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

25) 현재 고전 히브리어 연구의 주류는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에 뿌리를 둔 구조주의적인 언어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문제점을 지적한 성서 히브리어 학자의 글로 William M. Schniedewind, "Prolegomena for the Sociolinguistics of Classical Hebrew," *JHS* 5 (2004-2005): Article 6 (Online: http://www.jhsonline.org/Articles/article_36.pdf)을 참조하라. 1960년대에 독립된 학문 분과로 출발한 사회 언어학을 고전 히브리어 연구에 응용한 시도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Agustinus Gianto, "Variations in Biblical Hebrew," *Biblica* 77 (1996), 493-508; Schniedewind, "Prolegomena"; Frank H. Polak, "Sociolinguistics: A Key to the Typology and the Social Background of Biblical Hebrew," *HS* 47 (2006), 115-162를 보라. 그러나 언어 변이와 언어 변화에 대한 사회 언어학의 이론과 관점을 사용하여 성서 히브리어의 연대 결정에 관한 논의나 성서 히브리어의 통시적 연구를 시도한 예는 필자가 알기론 전무하다.

언어 사용자들은 **A** 규칙과 **B** 규칙을 모두 파악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둘 중 어느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언어는 변화 중에도 여전히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언어 변이성을 거치는 언어 변화의 모델을 단순화하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표 1>에서 **X**는 변화 이전의 옛 형태, **Y**는 변화 이후의 새 형태를 나타낸다).

<표 1> 변이를 통한 언어 변화의 예

단계	양상	변화의 단계
1	모든 환경에서 X만 사용됨	변화 시작 전
2	대부분의 환경에서 X만 사용되나 일부 환경에서 X와 Y가 함께 사용됨	변화의 초기
3	대부분의 환경에서 X와 Y가 함께 사용됨	변화의 전성기
4	대부분의 환경에서 Y만 사용되나 일부 환경에서 X와 Y가 함께 사용됨	변화의 말기
5	모든 환경에서 Y만 사용됨	변화 완료 후

출처: Walt Wolfram and Natalie Schilling-Estes, “Dialectology and Linguistic Diffusion,” Brian D. Joseph and Richard D. Janda, eds., *The Handbook of Historical Linguistics* (Malden: Blackwell, 2004), 716 (내용 일부 수정).

요약하면, 언어 변이와 언어 변화는 가이(Gregory R. Guy)의 표현대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언어 변이는 언어 변화의 “불가피한 공시적 단면”이고, 언어 변화는 예외 없이 언어 변이의 통시적 연장이다. 즉, 변화는 변이를 통해서만 일어난다.²⁶⁾

둘째, 언어 변화가 언어 변이를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이해가 포괄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 그것은 어떤 변화가 진행 중일 때 각 언어 사용자는 그 변화를 수용할 수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사회 언어학적 방법론으로 문헌 속에 반영된 언어의 변화를 추적하는 라우몰린-브룬버그(Helena Raumolin-Brunberg)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분명한 사실은 언어 변화가 진행 중일 때에 모든 언어 사용자는 그 변화에 참여할지 말지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이 선택은 보통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변화에 참여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의 양상 또한 다양하다. 먼저, 변화의 창시자, 즉 새 언어 형태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문헌들 속에서 변화의 창시자를 알아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 대신, 변화를 다른 이들보다 먼저 수용한 이들, 즉 다른 이들 대부분보다 먼저 새 형태를 사용한 이들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는 있다. 이들은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언어를 바꾸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언어 습득기(즉, 어린 시절)에 새 형태를 배웠을 수도 있다. 또 다른 구분을 한다면, 변이적인 문법(variable grammars)을 소유한 이들, 즉 옛 형태와 새 형태를 함께 사용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두 형태 중 하나만을 일관되게 사용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²⁷⁾

여기서 라우몰린-브룬버그가 지적하는 바는 변화의 수용에 있어서

-
- 26) Gregory R. Guy, "Variationist Approaches to Phonological Change," Brian D. Joseph and Richard D. Janda, eds., *The Handbook of Historical Linguistics* (Malden: Blackwell, 2004), 370. 주의할 점은 그 반대가 항상 참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언어 변이가 언제나 언어 변화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변이 상태가 안정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때로는 *-ing*으로 때로는 *-in*'으로 발음되는 영어의 현재 분사 어미(*-ing*)이다. 이 변이는 60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Guy, "Variationist Approaches," 371을 보라.
- 27) Helena Raumolin-Brunberg, "The Diffusion of Subject *You*: A Case Study in Historical Sociolinguistics,"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17 (2005), 60-61.

언중 간에, 또 개인의 문법 안에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언중의 대다수는 변화의 평균 속도에 맞추어 새 형태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언중의 일부는 평균 속도보다 빨리 새 형태를 받아들일 것이고, 또 다른 일부는 평균 속도보다 느리게 새 형태를 습득할 것이다. 요컨대, 언어 변화의 양상은 일시적이지도 않고, 통일적이지도 않다.²⁸⁾

5. 언어 변이성 개념에 근거한 연대 결정 논쟁의 이론적 평가

후르비츠와 그 도전자들 간의 논쟁-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를 언어 변화의 산물로 볼 것인지 동시대의 스타일로 볼 것인지, 또한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은 가능한지-을 사회 언어학의 언어 변이성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다음과 같은 이론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첫째, 언어 변화는 반드시 언어 변이를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사회 언어학의 이해는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가 동시대의 스타일이라고 규정한 도전자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일러 준다. 성서 히브리어 내에서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 특징들의 분포가 배타적이지 않고 경향성이나 빈도에 의존한다는 도전자들의 관찰은 분명 옳다. 그러나 이 관찰과 그들의 주장(성서 히브리어의 두 형태가 동시대의 스타일이라는 주장) 사이에는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것이다. 성서 히브리어 자료 내에 많은 변이들이 관찰된다는 점은 오히려 성서 히브리어 내에 통시적 언어 변화가 있었을 개연성을 높여준다. 언어 변화는 반드시 언어 변이를 통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이다.²⁹⁾

28) 성서 히브리어의 변이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논의로서 국내학자의 저술로는 유윤중, “구약성서 히브리어 변이의 구성요인들과 지역 방언과의 관계에 관하여,” 『구약논단』 9 (2000), 289-309이 있다.

29) 언어 변이에 관한 이론적 이해만 가지고는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

둘째, 언어 변이에 관한 위와 같은 이해는 분명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차이에 대한 전통적인 통시적 이해를 뒷받침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이론적 평가가 이에서 더 나아가 연대 결정에 관한 후르비츠의 이론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언어 변화에 관한 사회 언어학의 설명은 성서 본문의 연대를 언어학적 증거만을 가지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알려 준다. 우리로서는 연대 결정을 하려는 어떤 본문이 그 시대의 일반적 언어 변화보다 앞서갔는지, 뒤따라갔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연대를 결정하고자 하는 어떤 본문이 동시대의 다른 다수의 본문들보다 당대의 변화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나, 또는 훨씬 더 소극적으로 참여했다면 그 본문을 초기 성서 히브리어나 후기 성서 히브리어 일반적인 프로파일과 비교하여 연대를 결정하는 일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성서 본문들은 적극적 변화 수용자도 소극적 변화 수용자도 아닌, 당대의 일반적 경향을 따르는 다수에 속했으리라고 추측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경험적 기준이 우리에게겐 없다. 그리고 이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는 한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프로파일에 근거한 후르비츠의 성서 본문의 연대 결정 방법론은 포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의 차이가 통시적 변화에서 기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자료를 다루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곧 출판될 필자의 책은 언어학적 연대 결정에 관한 사회 언어학적 평가의 이론적인 면뿐만 아니라 경험적 연구도 포함한다[Dong-Hyuk Kim, *Early Biblical Hebrew, Late Biblical Hebrew, and Linguistic Variability: A Sociolinguistic Evaluation of the 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 VTSupp 156 (Leiden: Brill, forthcoming)].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도전자들이 다루었으며, 본 소고에서도 다룬 ‘맘라카’와 ‘말쿠트’는 성서 자료에서(보다 정확히 말하면 초기 성서 자료에서는) 분명히 변이의 관계이다. 그런데 성서 자료, 동시대의 성서 외 자료, 또한 성서 시대 이후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두 형태가 함께 사용된 것이 단순한 변이로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변화의 단면이었음이 드러난다. 성서 시대 후기로 들어서면서는 거의 전적으로 ‘말쿠트’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6. 나가며

지금까지 본 소고에서는 구약 성서 본문의 연대 결정을 둘러싼 논쟁을 조감한 후, 사회 언어학의 언어 변이성 개념을 차용하여 이 논쟁에 대한 이론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구약 성서 본문의 연대 결정을 둘러싼 후르비츠와 그의 지지자들과 도전자들 사이의 논쟁은 지금까지는 평행선을 달려온 듯했다. 그러나 언어 변이와 언어 변화에 관한 사회 언어학의 이해는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된다. 즉, 언어 변이에 관한 사회 언어학의 이론적 평가는 각 그룹의 학자들의 주장의 일부를 수용하는 동시에 일부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도전자들의 주장 중 언어학적 연대 결정 방법론이 근거 없다는 점은 옳지만,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가 동시대의 스타일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반면 후르비츠의 이론 중 성서 히브리어가 통시적 변화를 겪었다는 주장은 옳지만, 언어학적 연대 결정 방법론에 관한 그의 생각은 수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성서 히브리어에 대한 통시적 연구는 그 목적이 규범적(**prescriptive**)이어서는 안 되고 기술적(**descriptive**)이어야만 한다. 즉, 우리는 연대를 알 수 없는 어떤 본문의 연대를 규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는 없다. 반면, 다른 방법을 통해 연대가 결정된 어떤 성서 본문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료로 하여 그 본문이 속하는 시대의 히브리어의 층을 기술할 수는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언어학적 연대 결정에 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려는 시도가 결코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연구가 시도한 이론적 평가에 더하여 많은 자료들을 실제로 평가하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지금까지 소수의 성서 히브리어 학자들만이 관심을 보였던 사회 언어학이 고전 히브리어 연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일 뿐이다. 이 연구가 고전 히브리어 연구와

사회 언어학 사이의 간격이 조금 더 메워지는 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주요어>

성서 히브리어, 연대 결정, 후르비츠(Avi Hurvitz), 사회 언어학, 언어 변이(성), 언어 변화, 초기 성서 히브리어, 후기 성서 히브리어

<Key Words>

Biblical Hebrew, linguistic dating, Avi Hurvitz, sociolinguistics, linguistic variability, linguistic variation, linguistic change, Early Biblical Hebrew, Late Biblical Hebrew

* 접수일 2012년 8월 8일, 수정일 2012년 8월 25일, 게재 확정일 2012년 9월 25일

참고문헌

- 김유기, “성서 히브리어의 시대 구분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 『성서마당』 신창간 13 (2007), 62-71.
- 유윤중, “구약성서 히브리어 변이의 구성요인들과 지역 방언과의 관계에 관하여,” 『구약논단』 9 (2000), 289-309.
- 유윤중, “호세아서에 나타난 북이스라엘 히브리어,” 『구약논단』 11 (2001), 71-90.
- Bergey, Ronald L., “The Book of Esther: Its Place in the Linguistic Milieu of Post-Exilic Biblical Hebrew Prose: A Study in Late Biblical Hebrew,” Ph. D. Dissertation, Dropsie College for Hebrew and Cognate Learning, 1983.
- Blenkinsopp, Joseph, “An Assessment of the Alleged Pre-Exilic Date of the Priestly Material in the Pentateuch,”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08 (1996), 495-518.
- Davies, Philip R., *In Search of ‘Ancient Israel’*, 2nd ed., London: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 Dobbs-Allsopp, F. W., “Linguistic Evidence for the Date of Lamentations,” *Journal of the Ancient Near Eastern Society* 26 (1998), 1-36.
- Ehrensward, Martin., “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 Ian Young, ed., *Biblical Hebrew: Studies in Chronology and Typology,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369, London: T&T Clark, 2003, 164-188.
- Gianto, Agustinus, “Variations in Biblical Hebrew,” *Biblica* 77 (1996), 493-508.
- Guy, Gregory R., “Variationist Approaches to Phonological Change,” Brian D. Joseph and Richard D. Janda, eds., *The Handbook of Historical Linguistics*, Malden: Blackwell, 2004, 369-400.
- Hurvitz, Avi, “Linguistic Criteria for Dating Problematic Biblical Texts,” *Hebrew Abstracts* 14 (1973), 74-79.
- Hurvitz, Avi, “Once Again: The Linguistic Profile of the Priestly Material in

- the Pentateuch and Its Historical Age: A Response to J. Blenkinsopp,”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12 (2000), 180-191.
- Hurvitz, Avi, “The Language of Qoheleth and Its Historical Setting within Biblical Hebrew,” Angelika Berlejung and Pierre Van Hecke, eds., *The Language of Qoheleth in Its Context: Essays in Honour of Prof. A. Schoors on the Occasion of His Seventieth Birthday*, Orientalia Iovaniensia Analecta 164, Leuven: Peeters, 2007, 23-34.
- Hurvitz, Avi, “The Recent Debate on Late Biblical Hebrew: Solid Data, Experts’ Opinions, and Inconclusive Arguments,” *Hebrew Studies* 47 (2006), 191-210.
- Hurvitz, Avi, “The Relevance of Biblical Hebrew Linguistics for the Historical Study of Ancient Israel,” Ron Margolin, ed., *Proceedings of the Twelfth World Congress of Jewish Studies, Jerusalem, July 29-August 5, 1997: Division A: The Bible and Its World*, Jerusalem: World Union of Jewish Studies, 1999, 21*-33*.
- Hurvitz, Avi, *A Linguistic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estly Source and the Book of Ezekiel: A New Approach to an Old Problem*, Cahiers de la Revue biblique 20, Paris: J. Gabalda, 1982.
- Hurvitz, Avi, *The Transition Period in Biblical Hebrew: A Study in Post-Exilic Hebrew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Dating of Psalms*, Jerusalem: Bialik, 1972 [Hebrew].
- Hurvitz, Avi, “The Date of the Prose-Tale of Job Linguistically Reconsidered,” *Harvard Theological Review* 67 (1974), 17-34.
- Kim, Dong-Hyuk, “The Use of Linguistic Evidence in the Dating of Biblical Hebrew Texts,” Ph. 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2011.
- Kim, Dong-Hyuk, *Early Biblical Hebrew, Late Biblical Hebrew, and Linguistic Variability: A Sociolinguistic Evaluation of the 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 Supplements to Verus Testamentum, Leiden: Brill, forthcoming.
- Kutscher, E. Y.,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Raphael Kutscher, ed., Jerusalem: Magnes, 1982.

- Levine, Baruch A., "Late Language in the Priestly Source: Some Literary and Historical Observations," *Proceedings of the Eighth World Congress of Jewish Studies, Jerusalem, August 16-21, 1981: Panel Sessions: Bible Studies and Hebrew Language*, Jerusalem: World Union of Jewish Studies, 1983, 69-82.
- Milgrom, Jacob, "Priestly Terminology and the Political and Social Structure of Pre-Monarchic Israel," *Jewish Quarterly Review (new series)* 69 (1978), 65-81.
- Milgrom, Jacob, "The Antiquity of the Priestly Source: A Reply to Joseph Blenkinsopp,"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11 (1999), 10-22.
- Milgrom, Jacob, *Leviticus 1-1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Bible 3, New York: Doubleday, 1991.
- Polak, Frank H., "Parameters for Stylistic Analysis of Biblical Hebrew Prose Texts," Johann Cook, ed., *Bible and Computer: The Stellenbosch AIBI-6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Internationale Bible et Informatique, "From Alpha to Byte": University of Stellenbosch, 17-21 July, 2000*, Leiden: Brill, 2002, 259-281.
- Polak, Frank H., "Sociolinguistics: A Key to the Typology and the Social Background of Biblical Hebrew," *Hebrew Studies* 47 (2006), 115-162.
- Raumolin-Brunberg, Helena, "The Diffusion of Subject You: A Case Study in Historical Sociolinguistics,"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17 (2005), 55-73.
- Rendsburg, Gary A., "Once More the Dual: With Replies to J. Blau and J. Blenkinsopp,"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38 (2001), 28-41.
- Rendsburg, Gary A., *Linguistic Evidence for the Northern Origin of Selected Psalms*,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Monograph Series 43, Atlanta: Scholars, 1990.
- Robertson, David A., *Linguistic Evidence in Dating Early Hebrew Poetry*,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Dissertation Series 3, Missoul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for the Seminar on Form Criticism, 1972.

- Rooker, Mark F., *Biblical Hebrew in Transition: The Language of the Book of Ezekie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90, Sheffield: JSOT Press, 1990.
- Schniedewind, William M., "Prolegomena for the Sociolinguistics of Classical Hebrew," *Journal of Hebrew Scriptures* 5 (2004-2005), Article 6. Online: http://www.jhsonline.org/Articles/article_36.pdf.
- Trask, R. L., *Historical Linguistics*, London: Arnold, 1996.
- Vern, Robyn C., *Dating Archaic Biblical Hebrew Poetry: A Critique of the Linguistic Arguments*, Perspectives on Hebrew Scriptures and Its Contexts 10, Piscataway: Gorgias, 2011.
- Wright, Richard M., *Linguistic Evidence for the Pre-Exilic Date of the Yahwistic Source*, Library of Hebrew Bible/Old Testament Studies 419, London: T&T Clark, 2005.
- Young, Ian, ed., *Biblical Hebrew: Studies in Chronology and Typology*,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369, London: T&T Clark, 2003.
- Young, Ian, Robert Rezetko, and Martin Ehrensverd, *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 2, London: Equinox, 2008.
- Zevit, Ziony, "Review of Young, ed., *Biblical Hebrew*," *Review of Biblical Literature* 6 (2004), 1-15. Online: http://bookreviews.org/pdf/4084_3967.pdf.

<초록>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에 관한 논쟁과 언어 변이성 개념에 근거한 그 이론적 평가

김동혁

(감리교신학대학교 강사)

본 소고는 구약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에 대한 최근의 논쟁을 정리하고 그 논쟁을 사회 언어학의 언어 변이성(*linguistic variability*) 개념을 토대로 이론적으로 평가한다. 후르비츠(*Avi Hurvitz*)와 그를 따르는 학자들의 전통적인 의견은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가 그 형태와 시기에 있어서 단절되므로 성서 본문의 연대를 언어학적 증거만을 사용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영(*Ian Young*), 레젯코(*Robert Rezetko*), 에렌스베르드(*Martin Ehrensverd*) 등은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는 그 형태와 시기에 있어서 완전히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성서 본문의 연대를 언어학적 증거만을 사용해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더 나아가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는 포로기 이후 성서 기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동시대의 스타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논쟁의 핵심은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가 언어 변이를 통해서 구분된다는 점이다. 사회 언어학에서는 모든 언어 변화는 언어 변이를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규명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본 소고는 다음 두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언어 변이를 통해서 규정되는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는 동시대의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연대에 따른 언어 변화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둘째, 언어 변화가 언어 변이를 통해서만 일어난

다는 사실은 변화의 양상이 일시적이기도 않고 통일적이기도 않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프로파일만을 가지고 어떤 한 본문의 연대를 결정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옳지 못하다. 즉, 성서 본문의 연대를 언어학적 증거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Abstract>

The Debate over the 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 and Its Theoretical Evaluation

Dr. Dong-Hyuk Kim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e present paper surveys the debate over the 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 and attempts to evaluate it theoretically on the basis of the sociolinguistic concept of linguistic variability.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proposed by Avi Hurvitz and supported by his followers, is that Early Biblical Hebrew(EBH) and Late Biblical Hebrew(LBH) are distinct in form and in chronology and that it is possible to date a biblical text by using only linguistic data. On the other hand, scholars such as Ian Young, Robert Rezetko, and Martin Ehrensverd argue that EBH and LBH are not distinct in form and in chronology and so it is impossible to date a biblical text by using only linguistic data. They further maintain that EBH and LBH are two contemporary styles from which the postexilic biblical writers were free to choose. At the center of the debate is the fact that EBH and LBH are in many cases defined by linguistic variation. Sociolinguists have demonstrated that linguistic change occurs only through linguistic variation. On the basis of this under-

standing, the present study argues the following: First, EBH and LBH, which are defined by linguistic variation, are rather two phases of linguistic change of the biblical period than contemporary styles. Second, that linguistic change occurs only through the state of linguistic variation entails that the change is never instantaneous or uniform. Thus it is methodologically not valid to date a biblical text on the basis of the profile of LBH or of EBH. In other words, the 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 is theoretically impossible.